

4. 말씀 앞에서 – ‘부흥을 경험하라’

8: 1-12

1.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유행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2.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유행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3.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매 뜻 백성이 그 유행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4. 그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맛디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수과 하스밧다나와 스가랴와 므슬람이라
5.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떨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6.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7. 예수아와 바니와 세례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불라야와 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유행을 깨닫게 하였는데
8. 하나님의 유행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 백성이 유행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예위 사람들은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웃지 말라 하고
10.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11. 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12.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 준 말을 밝히 았이라

1990년대부터 한국에 많은 영향을 끼친 교회 중에 하나가 시카고에 있는 위로우 크릭 교회입니다. 무엇보다 불신자들에게 다가가는 교회로서의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죠.

제가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Willow Creek Association of Korea라는 모임을 만들게 되었고, 담임목사였던 빌 하이벨스 목사를 초청해 모임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자연스럽게 함께 식사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한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담임하는 월로우크릭 교회는 많은 남자들이 나와서 변화를 받는데, 어떻게 하면 남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근본적인 변화를 시켜 사회와 시대에 영향을 주는 변혁적 리더로 만들 수 있습니까?”

당시 Bill Hybels 목사의 대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첫째, 남성들에게 용기를 주라.

둘째, 남자들이 중요한 존재임을 인식시켜라.

셋째, 결단의 도전을 주라.

자신의 교회에서는 정기적으로 남성들만 강단 앞으로 나와 진지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피상적인 생각에 멈추게 하지 않고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하여 분명한 결단을 하도록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앞에서 결단하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결단의 순간을 통해 우리가 맛보아야 할 진정한 부흥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말씀 앞에서 결단 하도록 한다. . .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가 적들의 방해 속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았습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불평과 저항을 뚫고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건물적인 의미에서의 부흥과 회복 뿐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의 결단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결단의 의미를 설명하는 몇몇 의미 있는 단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본문 2절에 등장하는 ‘일곱째 달 초하루)라는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유행책을 가지고 회중 앞 끝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이스라엘에는 날짜를 계산사는 방법으로 민간력과 종교력이 있는데, 여기에서 7월이란 종교력으로 초막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즉 안식의 달인 일곱 번 째 달에 초막절을 기리기 위해 백성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민간력으로는 새해 첫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흔히 나팔절이라고도 불리는데, 나팔을 불어 이 날을 기념하였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3장 23-25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끝 그 달 첫 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이날’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임을 기념하며 믿음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이들이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 핵심은 출애굽 하여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은혜를 생각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에 감사하며 새해 첫날 모인 것입니다.

성벽이 재건되고,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이냐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은혜를 감사한 것입니다.

이 결단과 감사의 시간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주목해 보세요. 3절 말씀.

3.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매 뜻 백성이 그 유행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모두 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

께 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때부터 들려져야 합니다.

몇 년 전 변화산 기도회 때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저희 가정이 9층 사택에 살고 있지만, 잠시 공사 때문에 교회 앞 아파트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변화산 기도회가 되면 어린 아들과 딸을 깨워서 교회로 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참 오래된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는 변화산에 아이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변화산의 역사 를 보면, 처음에는 100일로 시작해 40일, 10일, 그리고 일주일로 줄어들면서 온 가족이 함께 하는 변화산으로 변화산이 변화되어 왔죠.

그 추운날 다른 아이들이 아무도 없던 때, 저희 아이들이 어른들 틈에 앉아 때론 졸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한 번도 불평을 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참 힘들었을 텐데 말이죠.

우리 아이들에게는, 교회를 다니면서 짐을 싸가지고 새벽으로 밤으로 다니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졌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이것을 “팔자”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했지요.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 평범합니다. 특별한 재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신은 말씀 가운데서 자라난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리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온 식구가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신년 초 설교 시리즈를 ‘말씀 앞에서’로 시작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무엘 학교를 처음 시작 하던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자고 시작하면서 주보에 광고를 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주보 표지에 실린 손주의 모습을 보면 너무 기뻐하던 한 할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 주보에 우리 손녀가 나왔어요!”

아마도 그 할머니의 마음에, 주보에 인쇄된 손녀가 기억될 수 있다는 것이 좋았던 것 같스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상상을 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 앞에 서서 삶을 결단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님께 선명하게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끔 스포츠 중계를 보다보면 카메라에 잡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

이 무엇인가요?

“특이한 사람들입니다. 눈에 튀는 사람들입니다.”

야구장 외야에서 경기는 안보고 연애하는 사람,

온 가족이 나와서 밥을 먹으면서 화목하게 바라보는 모습,

요란한 치장을 하고, 응원 도구를 가지고 와서 응원하는 사람.

떼로 몰려와서 시끄럽게 응원하는 사람들. . .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좀 특별함이 중요합니다. 점잖고 평범한 것 보다는 하나님께서 주목할 만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려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보시고, “너 만한 믿음을 보시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너 만한 믿음과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눈에 띠는 사람이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결단이,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확 눈에 들어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책을 가지고 모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때, 성전에 모인 그들이 말씀 앞에서 결단하겠다고 모인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말씀은 영적 부흥과 삶의 부흥을 일으키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리더십의 대가 스티븐 코비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게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바람직한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국의 상술에서는 축시(丑時)라는 말을 중요시합니다. 축시란 적절한 시기를 일컫는 말입니다. 쇠는 달구어졌을 때 두들겨야 합니다. 일단 식어지면 몇 배의 노력과 시간이 요구됩니다.

신앙의 원리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이 모든 것을 구하기 위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면 그 모든 것이 뒤따라오게 되는 원리가 신앙의 원리입니다.

청교도 설교가였던 Philip Brooks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의 것을 먼저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둘 다 얻을 것입니다. 땅의 것을 먼저 추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둘 다 잃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때문에 하찮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찮은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잃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 . .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말씀 앞에 섰던 유대 백성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들이 말씀 앞에 서야 할까요? 아모스 5장 4-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벨엘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벨엘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살 길입니다. 말씀 앞에 서야 우리의 갈 길을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잘못 살았던 삶의 죽적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씀 앞에 설 때에 잘못 살았던 삶에 대한 회개가 시작됩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우리들에게 은혜입니다. 은혜 받는 자의 가장 확실하고 표면적인 현상은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인 것은 예배 시간을 통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기 시작할 때, 영적부흥이 시작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 질 때, 왜 우는 현상이 일어날까요?

말씀으로 인해 자신이 깨닫지 못했던 죄가 깨달아 졌기 때문입니다. 깨달아지고 그 죄를 회개 할 때 죄 때문에 난 상처가 치료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치료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지요.

우리는 신체적으로 문제가 겼을 때 병원에 갑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 병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그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때로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임도 압니다. 분명한 것은 그 과정을 겪어야만 새로워진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한 번 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보겠습니다.

5.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떠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학사 에스라가 백성 앞에서 성경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교회들에서 예배를 드릴 때,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이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말씀을 낭독할 때 모든 교인들이 일어나서 말씀을 듣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느 때 일어섭니까?

내가 존경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 일어서지 않습니까? 우리는흔히 “마음으로 하면 되지”라고 하지만, 대부분이 거짓말일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에 있는데 왜 몸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엄마와 아빠가 집에 들어올 때는 꼭 일어나도록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저는 스스로 존칭을 하면서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배우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서 겸허하게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에스라가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 할 때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6절.

6.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보십시오!

찬양과 기도를 할 때,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끓고 하는 것들이 하나도 어색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끓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을 때, 눈물의 기도가 되고, 회개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영적 부흥의 역사가 눈물로 그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10. 너희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말씀 앞에서 울어본 자 만이 말씀이 주는 힘을 경험합니다. 더 이상 근심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는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잊어버리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오늘 여호와의 날에 모인 우리들이 누가 우리들 삶의 주인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분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음을 분명히 압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시편기자는 동일한 고백을 참으로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데, 다음의 고백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시편 40편 8절, 18편 1절, 62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영혼아 깊잡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시편 40편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의 법이 마음에 있는 자라야 주의 뜻 행함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만일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 뜻 행함이 즐겁지 않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즐겁고, 그것 때문에 자부심을 느끼십니까?

그렇게 느끼기 시작할 때, 그 분의 계심과 그분을 즐거워함이 힘이 됩니다.

그 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을 기억하시나요?

지금 이곳에서 설교하고 있는 제가 얼마나 잘난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는 것만으로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의 길을 걷고, 그 분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 분을 사랑하며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요, 그 분이 당신의 삶에서 능력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편 62편 5절의 고백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를 좋아 나는도다”

풍랑이 일 때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를 속 썩이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소망을 두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여호와를 바라보는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해 요한복음 시리즈로 말씀을 나눌 때,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나누며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병이 낫기를 기다리던 사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이 동할 때 연못에 들어가면 낫는데, 자기보다 나은 환자들이 먼저 들어가 치료의 기회를 잃었던 사람, 38년 동안 어쩌면 절망도 경험하고, 사람들에게 죽는 것이 낫겠다는 말을 들었음직한 그 사람에게 어느 날 주님이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적 부흥과 삶의 부흥을 꿈꾸며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찾아와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 위해 주시기를 원하는 무 제약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눈물 흘리며, 죄를 용서함 받고, 감격하여 무릎 끓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울지 마십시오. 이제는 즐거워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 . .